

신라 하대 赤烏 출현의 정치적 의미

손 흥 호*

- I. 머리말
- II. 고대 정치에서 祥瑞의 의미
- III. 신라 하대 祥瑞物의 종류와 특징
- IV. 赤烏의 출현과 왕권강화
- V. 맺음말

국문초록

고대에 있어 상서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王者의 盛德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신라 하대에는 이러한 상서물의 종류가 중대보다 대폭 줄어들며(11종류→ 6종류), 鳥類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때 적오가 처음으로 출현되어 진상되고 있다. 또 하대에 진상된 상서물 전체 14건 중 13건이 하대 초반기(785~825)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상서물을 진상한 지역도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하대 초기까지 중앙정부는 지방통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적오는 일찍부터 국가의 흥기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상서물로 인식되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연구원 / sillasaram@hanmail.net

었다. 한 고조 유방과 일본의 천무천황도 火德의 적오를 符瑞로 삼게 되었다. 신라 하대를 실질적으로 개창한 원성왕은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天命을 받았으며, 그것을 증명해야 했다. 바로 이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의미 있는 상서물인 적오가 출현하게 되었다. 원성왕이 즉위하자 바로 출현한 적오는 새 왕조의 확립과 그 왕조의 정당성이 천명에 의해 보장되는 상징이라고 하겠다. 또 이를 패강진에서 진상하였다는 것은 두상인 6두품으로 추정되는 김체신과 원성왕의 추종세력이 원성왕의 왕위계승을 지지하였다는 표시였던 것이다.

신라 하대 초기인 원성왕대에서 헌덕왕대까지(785~810) 26년간 5번만 집중 출현되어지는 적오는 天意가 필요로 했던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출현하게 되었다. 정치 세력들은 적오의 출현을 통해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이를 왕권강화의 도구로 상징화하였던 것이다.

◆ 주제어

상서, 상서물, 적오, 신라 하대, 원성왕

I. 머리말

고대의 지배자들은 ‘天’이 자신에게 정치권력을 내렸고, ‘天命’을 받아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하여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였다. 천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하늘에서 ‘祥瑞’와 ‘災異’ 등을 보낸다고 하였다.¹⁾ 중요한 정치적 변동이 생길 때마다 어김없이 상응하는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한 것으로 설정되고, 그것이 곧 天의 의지의 발현이라고 해석되어지곤 하였다.²⁾ 이와 같이 상서는 고대에 있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다. 상서는 王者의 盛德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³⁾

이러한 상서와 관련된 연구로는 일찍이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상서의 종류를 多産, 白色의 동물들과 다른 동물들의 상서, 상서의 별들, 서상의 곡식, 甘露, 솜리로 구분한 것이 있다.⁴⁾ 또 삼국시대의 상서물과 통일신라시대의 상서물이 가진 의미에 대해 총괄적으로 파악하면서, 중국적 오행사상에서 유래된 祥瑞說의 전형이 한국 고대사회에 수용되었다는 연구가 있다.⁵⁾ 이에 더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의 상서 기록들을 분석해 각각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⁶⁾ 또 상서물의 출현 횟수와 시기를 분석하여 중앙 왕권과 지방 세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⁷⁾ 고구려의 상서를 좀 더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한 연

1) 『漢書』 권56, 董仲舒傳, “國家將有失道之敗, 而天乃先出災害以譴告之, 不知自省, 又出怪異以警懼之, 尙不知變, 而傷敗乃至.”

2) 趙宇然, “神雀集宮庭”-고구려 王權 관련 神異記事 검토, 『東아시아 古代學』 48, 東아시아 古代學會, 2017, 50쪽.

3) 李熙德, 『韓國古代自然觀과 王道政治』, 혜안, 1999, 282쪽.

4) 朴星來, 『韓國史上에 나타난 天災地變의 記錄』, 『한국과학사학회지』 1, 한국과학사학회, 1979, 96~97쪽.

5) 李熙德, 앞의 책, 1999.

6) 신정훈, 『한국 고대의 서상과 정치』, 혜안, 2013; 「新羅 麻立干期和 中古期の 瑞祥과 政治」, 『국학연구논총』 15, 태민국학연구원, 2015.

7) 金周成, 「신라하대 왕실의 지방통치」, 『新羅文化』 26,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신라 문화연구소, 2005.

구8)와 瑞像로서의 고대 새의 관념을 분석하기도 하였다.⁹⁾ 7세기 중엽 첨성대 건립은 상서재이 기록의 증가와는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통계 분석한 연구도 있다.¹⁰⁾ 최근에는 중대 효소왕대 황금을 진상하고 남변제일의 관등을 받은 미힐에 대한 집중 연구에서 상서를 논하거나,¹¹⁾ 신라 하대 원성왕의 즉위과정에서 상서물인 적오를 단편적으로 논하기도 하였다.¹²⁾ 하지만 신라 하대 상서에 대한 연구는 고대사 연구의 다른 분야보다 연구 성과가 부족한 편이다.

신라 하대 연구에서 상서의 정치적 의미가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삼국사기』의 상서기록들이 대부분 단편적이며 고립된 기사로 되어 있어 해석의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삼국사기』의 신라 하대 기사에서는 천변재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변화 요인으로써 상서보다는 재이에 대한 연구로 신라 하대 정치와 사회를 설명하고 있는 실정이다.¹³⁾ 실제 상서의 기록보다는 재이의 기록이 훨씬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분석해야 하기도 한다. 신라 하대 사회의 변화요인으로 재이에 대한 연구도 무척 중요하다고 하겠다.¹⁴⁾ 하지만 재이와 함께 『삼국사기』 기사에 빈번하게 진상되었던 상서물에 대한 연

손흥호, 「9세기 전반 신라의 사회변동과 지방사회」, 『대구사학』 135, 大丘史學會, 2019.
신정훈, 앞의 책, 2013.

8) 趙宇然, 앞의 논문, 2017.

9) 이장웅, 「한국 고대 새(鳥類) 관념의 변화 - 신성한 새에서 현실의 새로」, 『韓國古代史探究』 31, 韓國古代史探究學會, 2019.

10) 정연식, 「7세기 첨성대 건립과 천문이변 기록 증가의 관련설에 대한 비판 - 『삼국사기』 신라본기 상서재이 기록의 통계 분석 -」, 『歷史學報』 206, 역사학회, 2010.

11) 여성구, 「신라 美矜考」, 『영남학』 8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12) 안주홍, 「신라 종묘제 수용과 변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안주홍, 「신라 하대 원성왕대의 宗廟와 瑞祥」, 『韓國古代史研究』 109, 한국고대사학회, 2023.

13) 9세기 연이은 기근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가 있는바 최근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이기봉, 「新羅 憲德·興德王代の 災異와 정치·사회적 영향」, 『역사와 경계』 100, 부산경남사학회, 2016; 전덕재, 「신라 왕권의 쇠퇴와 지배체제의 동요」,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6; 최광식, 「新羅 下代와 崔致遠」,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38,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신라문화연구소, 2017.

14) 손흥호, 앞의 논문, 2019에서 신라 하대 정치·사회·경제 변화 요인으로써 재이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 시대에서 필요로 했던 상서라는 상징이 가지는 복합적인 의미와 시대적 상황을 좀 더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특히 『삼국사기』 기록상 신라 하대 초기¹⁵⁾에 집중적으로 상서물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시기에 정치 변화 요인으로써 상서의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대 정치에서 상서물의 의미와 등급을 먼저 논한 후, 신라 하대 상서물의 종류와 특징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신라 하대 상서물의 특징을 중국·일본에서 기록된 상서물의 의미와 비교해보면 신라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신라 하대 초기인 원성왕대에서 헌덕왕대까지(785~810) 26년간만 5번 집중 출현되어지는 적오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왕권강화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실질적으로 하대를 개창한 원성왕이 즉위하자마자 처음으로 바쳐진 적오의 의미를 당시 시대상황과 오행설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신라 하대에 『삼국사기』에 기록된 상서물을 통해 당시 정치적 상황과 상서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하대의 정치와 사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고대 정치에서 祥瑞의 의미

『禮記』에서는 祥瑞와 災異를 국가의 興亡에 관한 전조라고 말한다.¹⁶⁾ 또 상서는 禎祥·符瑞·嘉瑞·瑞應·福應·瑞祥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대개는 천명을 받은 군주나 성인의 출현, 혹은 그 德政에 應하여 나타나는 吉兆

15) 여기서는 신라 하대를 각 시기별 정치·사회 상황을 기준으로 초기·중기·말기 3시기로 나누고, 그중 초기는 하대의 성립과 왕위쟁탈전 등으로 정국이 격동하는 시기인 제37대 선덕왕대부터 제46대 문성왕대까지로 설정한 견해에 따른다(손흥호, 「신라 하대 초기 정치과정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4쪽).

16) 『禮記』, 中庸, “國家將興 必有禎祥 國家將亡 必有妖孽.”

라고 말한다.¹⁷⁾

『白虎通義』에서는 태평성세에 상서물이 출현하는 이유에 대해, 성군이 세상의 陰陽과 만물을 조화롭게 하므로, 그 德에 응답하여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군주의 덕이 미치는 영역에 따라 대응하여 나타나는 상서물의 종류도 각각 다르다고 한다.¹⁸⁾

또 동중서의 천인감응론은 天을 중심으로 두고 진행되는데, 이러한 天의 의지 또는 主宰性이 현실에서 표출되는 형태가 祥瑞災異說이다.¹⁹⁾ 다만 천명을 받은 군주의 권력을 무한정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상응한 견제 장치를 두었다.²⁰⁾ 즉 군주가 善政을 베풀어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경우, 봉황이나 기린과 같은 상서를 보임으로써 격려하고, 반면에 暴政이나 過失 시에는 재이를 보여 경고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同類相動의 원리라는 것이다.²¹⁾

漢代 지배자들이 상서를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이용하면서 상서관념이 크게 흥하였다. 魏晉시기에 이르러서는 正史에 章節을 두어 상서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宋書』에서 최초로 符瑞志 上·中·下卷을 수록하였으며, 이후 『南齊書』에서도 祥瑞志를 두었고, 『魏書』에서는 靈徵志 上·下

17) 李熙德, 앞의 책, 1999, 281~282쪽; 『論衡』, 指瑞篇, “王者受富貴之命 故其動出 見吉祥異物 見則謂之瑞.”; 『漢書』, 王莽傳, “帝王受命 必有德祥之符瑞.”; 『論語注疏』, 子罕 第9, “孔曰 聖人受命 則鳳鳥至 河出圖.”

18) 『白虎通義』 권5, 封禪, “天下太平符瑞所以來至者, 以爲王者承統理, 調和陰陽, 陰陽和, 萬物, 序, 休氣充塞, 故符瑞並臻, 皆應德而至, 德至天則斗極明, 日月光, 甘露降, 德至地則嘉禾, 生, 蓂莢起, 秬鬯出, 太平感, 德至文表則景星見, 五緯順軌, 德至草木朱草生, 木連理, 德至鳥獸則鳳皇翔, 鸞鳥舞, 麒麟臻, 白虎到, 狐九尾, 白雉降, 白鹿見, 白鳥下, 德至山陵則景雲, 出, 芝實茂, 陵出異丹, 阜出蓮蓬, 山出器車, 澤出神鼎, 德至淵泉則黃龍見, 醴泉通, 河出龍圖, 洛出龜書, 江出大貝, 海出明珠, 德至八方則祥風至 佳氣時喜, 鐘律調, 音度施, 四夷化, 越裳貢.”

19) 김동민, 「董仲舒 春秋學의 天人感應論에 대한 고찰 - 祥瑞災異說을 중심으로」, 『동양 철학연구』 36, 동양철학연구회, 2004, 316쪽.

20) 『漢書』 권56, 董仲舒傳, “天人之徵, 古今之道也. … 其美惡之極, 乃與天地流通而往來相應.”

21) 『春秋繁露』, 同類相動, “美事召美類, 惡事召惡類, 類之相應而起也. … 帝王之將同也, 其美祥, 亦先見, 其將亡也, 妖孽亦先見.”

篇 설치하여 北魏 시기의 상서와 재이에 대해 다뤘다.²²⁾ 한편 중국에서도 시대에 따라 상서물의 종류는 다양하였다. 漢代의 畫像石에서는 36종이 확인되고 있으며, 『宋書』 符瑞志에서는 107종에 대해 언급하였다. 唐代에 이르러 130여 종으로 늘어났으며, 宋代에는 수백 종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²³⁾ 또한 『新唐書』 百官志나 『唐六典』에서는 상서물을 등급에 따라 大瑞·上瑞·中瑞·下瑞 4종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를 소상히 열거하였다.²⁴⁾ ‘嘉瑞’라 하여 大瑞보다 높은 제왕과 연관된 상서를 설정하기도 하였다.²⁵⁾

일본에서는 650년 상서란 단어가 처음 나타난 이후,²⁶⁾ 8·9세기 내내 일본사서에 많이 등장한다.²⁷⁾ 967년에 시행된 『延喜式』 권21의 治部省(祥瑞)에는 구체적인 物名과 등급이 구분되어 있다(아래 <표 1> 참고). 고대 일본의 상서는 개원이나 천황 즉위와 관계가 깊어 천황의 치세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으며, 왕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상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한다.²⁸⁾ 또 『日本書紀』나 『續日本紀』 등에서는 상서물을 바친 대부분의 진상자에게는 상서물의 등급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록하여 昇叙하고, 비단이나 곡식 등의 하사품을 내린 것이 확인된다.²⁹⁾

22) 趙宇然, 앞의 논문, 2017, 53쪽.

23) 李浩, 「中國古代祥瑞崇拜的文化詮釋」, 『民俗研究』 2008-2, 山東大學文史哲研究院, 2008, 167쪽.

24) 『新唐書』 志36, 百官1, “凡景雲, 慶雲爲大瑞 其名物六十有四. 白狼 赤兔爲上瑞 其名物三十有八. 蒼烏, 殊雁爲中瑞, 其名物三十有二. 嘉禾, 芝草, 木連理爲下瑞, 其名物十四.”; 『唐六典』 권4, 尙書禮部.

25) 『春秋左傳正義』 권1, 序, “麟鳳五靈, 王者之嘉瑞也.(孔穎達 疏) 麟鳳與龜龍白虎五者, 神靈之鳥獸, 王者之嘉瑞也.”

26) 『日本書紀』 白雉元年(650)2月1日條에 「상서」라는 단어가 처음 보인다.

27) 福岡水亜에 의하면 일본에서 상서물의 진상 건수는 8세기에는 1년 평균 1.3건이고, 9세기에는 이보다 조금 줄어 1건 미만인 된다고 한다(福岡水亜, 「九世紀における祥瑞の變化とその歴史的背景」, 『續日本紀研究』 421, 續日本紀研究会, 2020, 26~28쪽).

28) 東野治之, 「飛鳥奈良朝の祥瑞災異思想」, 『史料遍歴』, 雄山閣, 1975; 福原榮太郎, 「祥瑞考」, 『ヒストリア』 65, 大阪歴史学会, 1974; 柄 浩司, 「六国史の祥瑞記事について」, 『中央史学』 10, 中央大学, 1987.

29) 福岡水亜, 앞의 논문, 2020에서 상서물의 진헌부터 포상까지 과정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서에 대한 관념은 일찍부터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상서·재이 관념은 次大王 시기 白狐 출현 기사에서 알 수 있다. “하늘은 말을 타일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사스럽고 괴이한 것을 보여주어 인간 세상의 군주로 하여금 두려워하며 수양하고 반성하여 스스로 새로워지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한 무당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³⁰⁾ 즉 하늘이 인간 세상의 모든 사무에 일일이 관여할 수 없으므로, 재이를 보여 군주의 失政에 경고하니 군주 스스로 반성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서의 경우는 반대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고대 중국·일본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마치 군주가 신하에게 관직을 제수하듯이, 군주의 位는 하늘이 위임하는데,³¹⁾ 여러 상서물을 출현시켜 하늘의 뜻을 드러낸다는 것이었다.

신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서물을 하늘의 뜻으로 해석한 기사가 있다. 태종무열왕이 처음 즉위하였을 때 머리는 하나에 몸은 둘이고 다리는 여덟 개인 돼지를 바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천하를 병합 [六合]하는 좋은 징조이다”라는 기록이 있다.³²⁾ 이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것이라는 상서로 받아들인 것이다.³³⁾

30) 『삼국사기』 권15, 차대왕 3년, “天不能諄諄其言, 故示以妖怪者, 欲令人君恐懼修省, 以自新也.”

31) 『論衡』 권3, 初稟12, “王者生稟天命, 及其將王, 天復命之, 猶公卿以下, 詔書封拜, 乃敢即位.”

32) 『삼국사기』 권5, 태종 무열왕 2년, “冬十月 牛首州獻白鹿, 屈弗郡進白猪, 一首二身八足.”

『삼국유사』 기이1, 태종춘추공, “太宗初即位有獻猪一頭二身八足者, 議者曰, 是必并吞六合瑞也.”

33) 李熙德, 앞의 책, 1999, 289쪽.

<표 1> 『唐六典』과 『延喜式』에 보이는 상서물의 등급과 종류

大瑞	景星·慶雲·黃真人·河精·麟·鳳·鸞·比翼鳥·同心鳥·永樂鳥·富貴·吉利·神龜·龍·騶虞·白沢·神馬·周市·角端·解豸·比肩獸·六足獸·茲白·白象·一角獸·天鹿·繁封·罔耳·豹犬·露犬·玄珪·明珠·玉英·山稱萬歲·慶山·山車·象車·鳥車·根車·金車·朱車·屈軼·萇莢·平露·甫·蒿柱·金牛·玉馬·玉猛獸·玉甕·神鼎·銀甕·瓶甕·丹飯·醴泉·浪井·河水清·河水五色·江水五色·海水不揚波
上瑞	三角獸·白狼·赤羆·赤熊·赤豸·赤兔·九尾狐·白狐·玄狐·白鹿·白鸞·兕·玄鶴·青鳥·赤烏·三足鳥·赤鸞·赤雀·比目魚·甘露·廟生祥木·福草·禮草·萍實·大貝·白玉赤文·紫玉·玉龜·玉牟·玉典·玉璜·黃銀·金勝·珊瑚鉤·駭雞犀及戴通·壁瑠璃·鷄趣
中瑞	白鳩·白鳥·蒼鳥·白翟·白雉·雉白首·翠鳥·黃鶴·小鳥生大鳥·朱鴈·五色鴈·白雀·赤狐·黃羆·青熊·玄貉·赤豹·白兔·九真奇獸·流黃出谷·沢谷生白玉·瑯玕景·碧石潤色·出珠·陵出黑丹·威委·威綏·延喜·福并·紫脫常生·賓連達·善茅·草木長生
下瑞	秬秠·嘉禾·芝草·華平·人參生·竹實滿·椒桂合生·木連理·嘉木·戴角麀鹿·駭鹿·神雀·冠雀·黑雉·白鵲

* 진한 글자는 신라, 백제, 고구려에서 나타나거나 진상되어지는 상서물임.

한편 『唐六典』³⁴⁾과 일본의 『연희식』 치부성식에 따라 상서물의 등급을 구분하면 위의 <표 1>과 같다.³⁵⁾ 『삼국사기』 기록된 상서물은 등급을 나누지 않았고, 그 종류도 중국과 일본과도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삼국과 통일 신라에서 출현한 상서를 『당육전』과 『연희식』 치부성식에 보이는 상서의 명단을 참고하여 등급을 나누어 보았다. 실제로

34) 『唐六典』 권4, 禮部郎中員外郎條와 『資治通鑑』 권193, 唐紀9의 按에서는 정확한 숫자를 나타냈다.

『唐令拾遺』 儀制令, 第18 12·13항에서는 상서물의 기록들을 종합해두었다.

35) 『唐六典』 권4, 禮部郎中員外郎條의 상서물의 명단에는 大瑞가 64개, 上瑞가 38개, 中瑞가 32개, 下瑞가 14개 있고, 『延喜式』 治部省式에 보이는 상서물의 명단에는 大瑞가 59개, 上瑞가 38개, 中瑞가 33개, 下瑞가 15개 있어 상서물의 종류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일본 『延喜式』의 상서 제도는 당 제도의 모방으로 보기도 한다.

白猪같은 경우는 신라 무열왕 2년에 상서로 구분하여 바친 기록이 보이
나, 『당육전』과 『연희식』 치부성식에는 보이지 않는다.

또 상서는 위의 <표 1>과 같이 수많은 종류의 名物이 있고, 각기의
나타내는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 등급을 나누어 진상하는 자
에게 차별 있게 보상하기도 하였다. 『삼국사기』의 기록으로는 상서의 진
현 과정을 알 수 없지만, 일본의 「養老令」에는 상서의 발견에서부터 포
상까지의 과정이 정리되어 있다.³⁶⁾ 신라에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양로령」을 참고하여 신라의 상서물의 진현 과정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먼저 상서물이 출현하면 圖書을 사용하여 판별한다. '도서'는 상서물에
대해 기재한 것으로 주·군에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상서 여부
를 최초로 판단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방관인 또는 지방 유력자였다
고 볼 수 있다. 판별한 결과 상서이면 지방관에게 보고된다. 鳥獸의 경
우 생포했으면 진헌되고, 생포하지 못한 것과 진헌할 수 없는 것은 글이
나 그림으로 보낸다. 이후 포상이 이루어지는 단계일 것이다. 신라에서
도 위와 마찬가지로 생포하여 진상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어떤 정치적
목적 을 가지고 진상하는 경우에는 글이나 그림 등을 이용하였을 가능성
이 크다고 하겠다.

또 상서물로 바쳤으나 人爲로 드러나면 처벌되기도 했을 것이다. 『續
日本紀』에는 앞밭이 소처럼 갈라진 말을 상서물로 바쳤지만 인위로 드러
나 杖 80대의 처벌을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다.³⁷⁾ 좀 뒤의 사실이지
만 『大明律』에도 상서물을 위조하는 자는 장 60대와 1년 징역에 처한다
고 하여 엄벌에 처했다.³⁸⁾ 조선에서도 상서물을 위조하여 바치는 자가

36) 「養老令」儀制令8, 祥瑞條, “凡祥瑞應見, 若麟鳳龜龍之類, 依圖書合, 大瑞者, 隨即表奏., 其表唯顯, 瑞物色目及出處所, 不得荷陳, 虛飾, 徒事浮詞. 上瑞以下, 並申所司, 元日以聞. 其鳥獸之類, 有生獲者, 仍遂其本性, 放之山野. 余皆送治部. 若有不可獲, 及木連理之類, 不可送者, 所在官司, 案驗非虛, 具書函上. 其須賞者, 臨時聽勅.”

37) 『續日本紀』宝龜3(772)年7月22日條 “上總国献馬, 前二蹄似牛, 以為祥瑞. 視之人巧之所刻也. 国司介從五位下巨勢朝臣馬主已下五人, 並座解任. 其本主, 天羽郡人宗我部虫麻呂決, 杖八十.”

상당히 많았던 모양이다. 『조선왕조실록』 예종실록에는 충청도 관찰사 金良瓚이 흰 노루를 포획하여 箋文과 함께 바치었으므로, 신하들이 陳賀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강령 현감 金處禮가 白鹿을 바침으로 해서 차례를 뛰어넘어 관직에 제수됨으로부터 여러 道에서는 白雉·白鳥의 類와 같은 奇物을 얻으면, 다투어 바쳐 포상을 바라는 자가 자못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³⁹⁾ 이와 같이 포상을 바라며 상서물을 진상하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것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Ⅲ. 신라 하대 祥瑞物의 종류와 특징

신라 하대에는 상서물의 종류가 중대보다 대폭 줄어들며(11종류→ 6종류), 鳥類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조류는 고대로부터 靈物로 신성시 되었으며 하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사자로서 王을 중심으로 한 정치 행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⁴⁰⁾

아래의 <표 2>와 같이 신라 하대에 진상되어지는 상서물은 총 14건이었으며 이 중 12건이 鳥類이다. 赤烏 5건, 白鳥(鳥) 3건, 白雉 3건, 白鵠 1건, 白鹿 1건, 嘉禾 1건이다. 이때 적오와 백오가 신라에서 처음으로 출현되어 진상되고 있다. 또 이러한 상서물은 하대 초반기(785~825)에 하대 전체 14건 중 13건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제38대 원성왕대에 4건(적오2·백치1·백조(오)1), 제39대 소성왕대에 2건(백록1·백오1), 제40대 애장왕대에 4건(적오2·백치1·백작1), 제41대 헌덕왕대에 3건(적오1·백치1·백오1)의 상

38) 『大明律』 권248, 詐僞 條385條 詐爲瑞應, “凡詐爲爲, 僞瑞應者, 杖六十徒一年.”

39) 『조선왕조실록』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 5월 10일 癸巳 2번째 기사 “忠淸道觀察使金良瓚獲白獐, 隨箋以進. 院相昌寧君, 曹錫文及承旨等, 請陳賀, 不允. 自康翎縣監金處禮進白鹿越次除官, 諸道得奇物, 如白雉, 白鵠之類, 競獻邀賞者頗多.”

40) 권오영, 「한국 고대의 새(鳥) 관념과 祭儀」, 『역사와 현실』 32, 한국역사연구회, 1999.

서물이 진상되어지며, 그 외에는 제49대 현강왕 6년(880)에 嘉禾가 한번 진상되며 더 이상 상서물의 진상은 없어진다. 즉 하대 초기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적오·백오가 집중적으로 출현되어 진상되어지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獻進으로 기록된 상서물의 종류와 수

순	상서물	등급	상대	중대	하대	계
1	靑牛		1			1
2	白鹿	上瑞	1	1	1	2
3	嘉禾	下瑞	3	1	1	4
4	白雉	中瑞	2	1	3	3
5	白猪			1		1
6	異鳥			1		1
7	白狐	上瑞		1		1
8	瑞芝金芝	下瑞		4		4
9	白雀	中瑞		2		2
10	白鷹			2		2
11	白鳥			1		1
12	白鵲	下瑞		4	1	4
13	赤鳥	上瑞			5	5
14	白鳥(鳥)	中瑞			3	3
계			7	19	14	26

※ 등급은 앞의 <표 1>을 참고하였음.

<표 3>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獻進으로 기록된 상서물

시기	왕 력	년 월	상서물	구분	등급	獻進주체	비 고
상대	婆娑尼師今 5년	84년 5월	靑牛	獻		古陞郡主	
	伐休尼師今 3년	186년 7월	嘉禾	進	下瑞	南新縣	
	助賁尼師今 13년	242년 秋	嘉禾	進	下瑞	古陞郡	
	儒禮尼師今 11년	294년 7월	嘉禾	進	下瑞	多沙郡	
	奈勿尼師今 3년	358년 2월	紫雲, 神雀		下瑞	始祖廟	
	奈勿尼師今 7년	362년 4월	樹連理		下瑞	始祖廟	
	奈勿尼師今 21년	376년 7월	一角鹿	進		夫沙郡	
	奈勿尼師今 24년	379년 4월	小雀生大鳥	有	中瑞	楊山	
	訥祗麻立干 25년	441년 2월	白雉	進	中瑞	史勿縣	賜縣吏穀.
訥祗麻立干 36년	452년 7월	嘉禾	進	下瑞	大山郡		
炤知麻立干 18년	496년 2월	白雉	送	中瑞	伽倻國		
중대	太宗武烈王 2년	655년 10월	白鹿	獻	上瑞	牛首州	
	太宗武烈王 2년	655년 10월	白猪	進		屈弗郡	一首二身八足
	太宗武烈王 6년	659년 9월	白鳥	進		何瑟羅州	
	文武王 2년	662년 8월	白鵲	獻	下瑞	南川州	
	文武王 17년	677년 3월	白鷹	獻		所夫里州	
	文武王 18년	678년 5월	異鳥	獻		北原	1월 복원소경 설치
	神文王 11년	691년 3월	白雀	獻	中瑞	沙火州	
	孝昭王 6년	697년 7월	嘉禾	進	下瑞	完山州	
	聖德王 3년	704년 1월	金芝	進	下瑞	熊川州	
	聖德王 7년	708년 1월	瑞芝	進	下瑞	沙伐州	
	聖德王 8년	709년 3월	白鷹	獻		菁州	
	聖德王 14년	715년 4월	白雀	進	中瑞	菁州	
	聖德王 19년	720년 5월	白鵲	進	下瑞	完山州	
	聖德王 19년	720년 7월	白鵲	獻	下瑞	熊川州	
	聖德王 23년	724년 1월	瑞芝	進	下瑞	熊川州	
	孝成王 3년	739년 9월	白鵲	獻	下瑞	完山州	
	景德王 12년	753년 8월	白雉	獻	中瑞	武珍州	
	景德王 13년	754년 5월	瑞芝	獻	下瑞	牛頭州	
景德王 15년	756년 4월	白狐	獻	上瑞	大永郎	★ ⁴¹⁾ 授位南邊 第一	

41) ★는 개인이 진상한 것이나 이때 개인은 관등을 가진 태수나 현령일 가능성이 높음.

하대	元聖王 1년	785년 3월	赤烏	進	上瑞	溟江鎮	
	元聖王 6년	790년 1월	赤烏	進	上瑞	熊川州	
	元聖王 9년	793년 8월	白雉	獻	中瑞	奈麻金惱	★
	元聖王 10년	794년 7월	白鳥	進	中瑞	漢山州	
	昭聖王 1년	799년 3월	白鹿	進	上瑞	冷井縣令 廉哲	★
	昭聖王 1년	799년 8월	白鳥	獻	中瑞	漢山州	
	哀莊王 2년	801년 9월	赤烏	進	上瑞	武珍州	
	哀莊王 2년	801년 9월	白雉	進	中瑞	牛頭州	
	哀莊王 3년	802년 8월	赤烏	進	上瑞	歙良州	
	哀莊王 5년	804년 7월	白鵲	進	下瑞	歙良州	
	憲德王 2년	810년 1월	赤烏	進	上瑞	河西州	
	憲德王 2년	810년 7월	白雉	進	中瑞	西原京	
	憲德王 17년	825년 秋	白鳥	獻	中瑞	歙良州	
	憲康王 6년	880년 5월	嘉禾	進	下瑞	熊州	

※ 등급은 앞의 <표 1>에 의함.

위의 <표 3>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진·현으로 기록된 상서물을 정리한 것이다. 이중 등급은 『삼국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앞의 <표 1>을 참고하여 작성해보았다. 『삼국사기』에는 상서물의 등급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 3>과 같이 상·중·하대에 등급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듯하다. 신라에서 상서물은 등급에 따라 어떤 의미를 두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또한 상서물을 진상한 지역도 <표 3>과 같이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는 하대 초기까지 중앙정부는 어느 정도 지방통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8세기 말까지는 중앙정부가 기근과 도적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었으나,⁴²⁾ 상서물의 진상이 점차 사라지는 9세기에 들어와서는 연이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대응이 역부족인 상황이 되었고, 지방사회는 계속 동요하게 되었던

42) 8세기말 원성왕대에는 어느 정도 기근에 대처한 듯 보인다.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원성왕조.

3년 9월, “王都民饑, 出粟三萬三千二百四十石, 以賑給之, 冬十月, 又出粟三萬三千石, 以給之.”

5년 1월, “漢山州民饑, 出粟以賑之.”

6년 5월, “出粟賑漢山·熊川二州饑民.”

12년 봄, “京都飢疫, 王發倉廩賑恤之.”

것이다.⁴³⁾

하대 초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赤烏, 白烏, 白雉 등의 상서물은 왕권강화와 연관이 있는 상서물이기 때문에, 왕권이 지방과 이완되어 가던 김현창의 난(822)과 그의 아들 범문의 난(825)을 기점으로 진상되어지는 상서물은 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김현창 부자의 난 이후 신라의 지방통치력이 더욱 약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⁴⁴⁾ 다만 현강왕 6년(880)에 嘉禾의 진상은 가화의 의미로 볼 때 현강왕대의 왕경 중심의 盛世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⁵⁾

또한 <표 3>과 같이 신라 전시기에 거쳐 조류는 주로 흰색의 상서물이 진상되고 있다. 흰색의 의미에 대해서는 김알지의 白雞와 동명왕편의 白鶴, 혁거세의 白馬 등 건국신화에서 ‘밝음’을 뜻하는 흰색을 冠하고 있어 천신=태양신의 신물로서의 신성한 상징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⁶⁾ 하대 초기에는 적오로 상징되는 붉은색의 상서물이 처음 출현되며 집중되고 있다. 신라에서 흰색과 붉은색의 조류는 天과 연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대 상서물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상서물을 바친 자들에게 賜祿이나 하사품을 내린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대 눌지마립간 25년(441) 2월에 白雉를 바친 史勿縣의 관리에게는 곡식을 내리기도 하였으며.⁴⁷⁾ 중대 효소왕 8년(699) 9월에는 황금을 바친 미힐에게 남변제일의位와 조 100석을 내렸고,⁴⁸⁾ 경덕왕 15년(756) 4월에는 흰 여우를 바친

43) 李基東, 「新羅 興德王代の 政治와 社會」, 『國史館論叢』 21, 국사편찬위원회, 1991;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1997, 152~153쪽의 분석 참고.

44) 손흥호, 앞의 논문, 2019, 13~14쪽.

45) 李熙德, 앞의 책, 1999, 286쪽; 신경훈, 앞의 책, 2013, 148쪽.

46) 강봉룡, 「한국 고대사에서 龍에 대한 인식의 변천-왕 神聖 권위의 변화와 관련하여-」, 『歷史學研究』 86, 湖南史學會, 2022, 13쪽.

47) 『삼국사기』 권3, 눌지마립간 25년(441), “春二月, 史勿縣進長尾白雉, 王嘉之, 賜縣吏穀.”

48) 『삼국사기』 권9, 효소왕 8년(699), “新村人美昝得黃金一枚, 重百分, 獻之, 授位南邊第一, 賜租一百石.”

이때 황금은 상서물로 보지 않는다.

대영랑에게 남변제일의 位를 내린 기록이 있다.⁴⁹⁾ 하지만 하대에는 상서물을 진헌하는 지역이나 개인에게 位品이나 하사품을 내린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삼국사기』 편찬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상서의 상징성으로 미루어 볼 때 신라 하대에서도 어느 정도의 하사품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IV. 赤烏의 출현과 왕권강화

『삼국사기』에는 적오 관련 기사가 고구려 1회, 백제 1회, 신라 元聖王 원년(785)부터 憲德王 2년(810)까지 약 26년간 5회만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적오의 정치적 의미를 심도 있게 파악하여 왕권강화로 어떻게 상징화해 나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구려에서는 대무신왕 시기 부여에서 머리가 둘 달린 적오를 보내왔는데, 이를 오행설로 해석하여 곧 부여를 병합할 징조였다는 기록이 있다.⁵⁰⁾ 또 백제에서는 태양 사이에 끼인 적오 같은 구름이라고 해서,⁵¹⁾ 적오가 구체적으로 출현되지는 않았지만, 상서물로서의 적오를 인식하고 있었던 듯하다. 한편 신라에서도 「文武王陵碑」에 적오 관련 문구가 보이지만,⁵²⁾ 상서물로서의 의미는 아닌 듯하다.

또 적오는 火德으로 符瑞되어지고 있다.⁵³⁾ 『史記』 周本紀 이래로 주나라는 火德을 얻고 적오를 符瑞로 삼아 赤으로 표현되었으며, 白魚가

49) 『삼국사기』 권9, 경덕왕 15년(756), “夏四月, 大永郎獻白狐, 授位南邊第一.”

50) 『삼국사기』 권14, 대무신왕 3년(20), “三年, 冬十月, 夫餘王帶素遣使, 送赤烏一頭二身, 初夫餘, 人得此烏, 獻之王, 或曰, 烏者黑也, 今變而爲赤, 又一頭二身, 并二國之徵也, 王其兼高句麗乎, 帶素喜送之, 兼示或者之言, 王與群臣議, 答曰, 黑者北方之色, 今變而爲南方之色, 又赤烏瑞物也, 君得而不有之, 以送於我, 兩國存亡, 未可知也, 帶素聞之, 警悔.”

51) 『삼국사기』 권24, 비류왕 24년(327), “有雲如赤烏夾日.”

52) 「慶州 文武王陵碑」, “雄赤烏呈災, 黃熊表崇, 俄隨風燭, 忽.”

53) 『水經注』 권19, 渭水, “洪範五行傳云, 赤者, 火色也.”

배에 뛰어들어 은나라가 항복할 조짐을 보였다고 하여, 적오와 백어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전래되고 있다.⁵⁴⁾ 赤과 白의 오행설에 의해 赤의 周나라가 白의 殷나라를 멸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삼국사기』에서도 위의 周나라 고사와 유사한 기사가 있다. 문무왕 11년(671) 정월에 백제를 구원하러 오려는 唐兵를 막기 위해 용포를 지키는 중 白魚가 뛰어들었다는 기사이다.⁵⁵⁾ 당시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과 대립하고 있었으며, 5년 뒤 당제국의 침략을 완전히 방어하였다. 당시 신라인은 그 과정에서 뛰어난 백어를 상서의 징조로서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⁵⁶⁾

鄒衍의 ‘五德終始說’에 따르면 중국 역대의 왕조는 오행의 德 가운데 하나를 부여받아 이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므로, 왕조계승에는 相勝 관계를 이루는 오행순환의 원리가 작용한다고 하였다.⁵⁷⁾ 한나라에서는 鄒衍이 黃帝土德을 내세우면서 ‘五德相勝’으로 인해 곧 水德이 등장한다고 예언했던 것과는 달리, 『漢書』 「高祖皇帝紀」에는 劉向·劉歆 부자가 五行의 運에 따라 伏羲木德에서 시작하여 以母傳子와 같은 ‘五德相生’이론으로 한나라는 火德의 赤統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⁸⁾ 한나라가 火德의 赤

54) 『史記』 권4, 「周本紀」, “武王渡河, 中流, 白魚躍入王舟中, 武王俯取以祭, 既渡, 有火自上復於下, 至於王屋, 流爲烏, 其色赤, 其聲魄云.”

55) 『삼국사기』 권7, 文武王 11년(671), “春一月, 聞唐兵欲來救百濟, 遣大阿漚真功·阿漚□□□□兵守甕浦. 白魚躍入□□□□□□□□□□一寸.”

56) 이희덕, 앞의 책, 1999, 284쪽. 『史記』 周本紀와 『宋書』 符瑞 上과 下에 周 武王과 관련된 상서물로 白魚가 보인다. 그리고 『南齊書』 祥瑞에 白魚 두 마리가 배에 뛰어들었다고 하여 상서로 기술되어 있다.

57) 『文選』 권59, 所引, 『都子終始』 逸文, “五德從所不勝, 虞土, 夏木, 殷金, 周火.” ; 『漢書』 「郊祀志」, “黃帝得土德, 黃龍地蚺見, 夏得木德, 青龍止於郊鬯茂, 周得火德, 有赤烏之符.”

58) 『漢書』 「高祖皇帝紀」, “及至劉向父子, 乃推五行之運, 以子承母, 始自伏羲, 以迄於漢, 宜爲火德, 其序之也, 以爲易稱帝出乎震, 故太皞始出於震, 爲木德, 號曰伏羲氏.”
楊洋, 「漢代 堯後火德說의 성립」, 『歷史學研究』 68, 湖南史學會, 2017, 248쪽에서는 堯後火德說은 주로 두 단계로 발전해왔다. 하나는 漢爲火德說을 확립한 것이고, 하나는 劉漢世系에서 요임금과 유방 사이에 계보를 채워 넣은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후한이 세워질 때 유가 경진 속 요순宣揚을 이용하여 황위를 얻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고 했다. 그렇다면 선덕왕에서 원성왕으로의 왕위 계승에서

統을 삼은 이후 중국에서는 적오를 상서로 진상하는 기록들이 많다.⁵⁹⁾

고대 일본에서도 적오의 진상이 집중되는 시기가 있었다. 이를 통해 신라 하대에 적오의 진상이 집중된 원인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日本書紀』 壬申紀(天武 元年紀)에 大海人皇子(天武天皇)의 군사가 美濃에서 출격할 때 “恐其衆與近江師難別, 以赤色着衣上”라고 하여 대해인황자의 군사는 붉은 색을 상징한다. 井上通泰는 대해인황자는 秦나라의 뒤를 이어 漢나라를 세운 高祖 劉邦이 붉은 색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이를 깃발의 상징으로 하였다는 고사를 모방하였다고 하였고,⁶⁰⁾ 坂本太郎은 이에 동의하여 대해인황자는 天智天皇을 진나라 始皇제로, 大友皇子를 二世 황제로 간주하고, 자신을 한나라 고조로 간주함으로써 군사를 일으켰다고 추측하였다.⁶¹⁾ 대해인황자[天武天皇]을 한나라 고조로 간주하는 사상은 天武 및 그 황후(지통)와 손자들(문무·원정)의 치세까지 계속하여 존재하였던 것이 된다.⁶²⁾ 고대 일본에서도 이 시기에 적오나 赤雀 등 붉은 새가 상서물로서 숭상되었다는 기록이 집중되어 등장하고 있다.⁶³⁾ 이후는

이러한 요순 선양을 지향하며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애장왕에서 헌덕왕으로 왕위찬탈도 어떤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한의 화덕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기본적으로 원성왕 정권과 헌덕왕의 정권은 혁명정권이라고 본다. 이들 혁명정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왕권의 정당성이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나라의 火德을 원성왕이 수용하면서 적오가 출현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한다.

59) 『宋書』符瑞志에는 漢章帝元和(84.8~87.7) “赤烏見郡國.”;

孫權赤烏元年(238), “有赤烏集於殿前.”;

吳孫休永安(260)三年三月, “西陵言赤烏見.”; 晉元帝永昌(324)二年正月, “赤烏見暨陽.”;

宋武帝永初(421)二年二月, “赤烏六見北海都昌.”;

孝武帝大明(461)五年六月戊子, “赤烏見蜀郡, 益州刺史劉思考以獻.”

『舊唐書』志第17 五行 大曆11年(776), “渭州獲赤烏.”;

本紀第13 德宗下(795) 貞元11年 十一月, “潭州獻赤烏.”

60) 井上通泰, 「天武天皇紀闡幽」, 『萬葉集雜攷』, 明治書院, 1932.

61) 坂本太郎, 『日本史』2, 好学社, 1960, 114쪽.

62) 直木孝次郎, 「持統天皇と呂太后」, 『持統天皇』, 吉川弘文館, 1985.

63) 『日本書紀』 권29, 天武天皇6年(677)11月1日, “筑紫大宰獻赤烏.”;

9年(680)7月10日, “朱雀有南門.”

10年(681)7月1日, “朱雀見之.”;

붉은 색의 새를 상서물로 진상하는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漢나라를 세운 高祖 劉邦은 패왕 항우의 전투에서 처음에는 열세에 놓여 있었으나, 뒤에 세력이 살아나 천하를 잡았다. 일본의 천무천황도 한 고조의 천하 패권 과정을 임신의 난에 비유하면서, 한고조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사용하게 되었고, 火德의 적오를 符瑞로 삼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신라 하대를 실질적으로 개창한 원성왕의 즉위 과정과도 상통하며, 손자대인 헌덕왕대까지만 적오가 출현한다는 점도 비슷하다. 즉 원성왕도 화덕의 적오를 부서로 삼은 것이 아닌가한다.⁶⁴⁾ 신라 하대 초기에 적오의 출현으로 천명을 받아 즉위하였다는 것을 상징화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려고 한 점은 천무천황과 손자대의 치세까지, 원성왕과 그 손자대의 치세까지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신라 하대 초기에 적오가 처음 출현되고 사라지지만, 백색의 조류들도 함께 출현되고 있는 점이 고대 일본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신라 하대 초기에 5번만 진상된 적오의 정치적 의미를 『삼국사기』의 관련 기사를 통하여 하나씩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A. 元聖王이 즉위하였다. 휘는 敬信이고 나물왕의 12세손이다. 母는 박씨 繼烏夫人이고 妃는 김씨이니 神述角干의 딸이다. … 2월에 追封하여 高조부인 대아찬 法宣을 玄聖大王이라 하고, … 아버지 일길찬 孝讓을 明德大王이라 하였다. 어머니 박씨를 昭文太后라 하였으며, 아들 仁謙을 왕대자로 삼았다. 聖德大王과 開聖大王의 두 묘를 단고 시조대왕·太宗大王·文武大王과 祖父 興平大王·明德大王을 五廟로 하였다. 문무백 관의 官爵을 한 계급씩 더하였다. 이찬 병부령 忠廉을 상대등으로 삼고 이찬 悌恭을 시중으로 삼았으나 제공이 사면하므로 이찬 世強을 시중으로 삼았다. 3월에 전 왕비인 具足王后를 外宮으로 내보내고

朱鳥元年(686) 7月20日, “改元曰朱鳥元年. 仍名宮曰飛鳥淨御原宮.”;

권30, 持統6年(692)5月7日, “相摸國司獻赤烏二隻.”;

『續日本紀』 권1, 文武2年(698)7月17日, “下野備前二國獻赤烏. 伊豫國獻白鸞.”;

권3, 慶雲2年(705)9月26日, “越前國獻赤烏.”

권8, 養老5年(721)1月1日, “武藏上野二國並獻赤烏. 甲斐國獻白狐.”

64) 안주홍, 앞의 논문, 2022, 151~153쪽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租 3만 4천 석을 내렸다. 패강진에서 赤烏를 진상하였다. 摠管을 고쳐 都督이라 하였다. (『삼국사기』 권10, 원성왕 즉위년(785))

실질적으로 신라 하대를 개창했다고 할 수 있는 원성왕은 즉위하자 (785년 1월) 곧바로 선조를 추봉하며, 仁謙을 왕태자로 삼고, 오묘를 정비하고, 백관에게 관작을 한 계급씩 더하며, 상대등과 시중을 새로이 임명하며, 前왕비를 외궁으로 내보내며, 패강진에서 적오를 진상받았고, 총관을 도독으로 고쳐 부르게 하는 등 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그 중에 신라에서 처음으로 진상되는 적오의 기록이 보인다. 원성왕 즉위 초에 바로 진상된 적오의 정치적 의미는 시기상으로 볼 때 원성왕의 즉위와 관련이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⁶⁵⁾

원성왕은 선덕왕의 族子인 김주원이 關川의 물이 넘쳐 건너오지 못하는 틈을 타서 왕위를 오르게 되었다. 이를 『삼국사기』 원성왕 즉위조에는 “오늘 폭우가 내린 것은 혹여 하늘이 주원을 세우고 싶지 않음이 아닐까[天其或者不欲立周元乎]”라고 하여, 원성왕이 天命으로 왕위를 잇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원성왕은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天命을 받았으며, 그것을 증명해야 했다. 바로 이때 상서물의 출현이 기대되었을 것이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의미 있는 상서물이 출현하게 되었다. 바로 적오의 출현은 새 왕조의 확립과 그 왕조의 정당성이 天命에 의해 보장되는 상징이라고 하겠다.⁶⁶⁾ 周武王이 赤烏와 白魚를 얻은 것은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것이며, 하늘이 적오, 백어 등의 상서물을 이용하여 天命을 준 것⁶⁷⁾이라고 한 것과 비슷한 의미인 것이다. 또 『宋書』符瑞志에 적오는 병사가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은을 정복했다고 의미를 부여한다.⁶⁸⁾ 원성왕의 즉위도 적오의 의미와 같이 국인의 추대로 이루어지며, 큰 무력충돌이 없는 不血에 부합되는 것이다.

65) 신정훈, 앞의 책, 2013, 137쪽.

66) 이희덕, 앞의 책, 1999, 283쪽.

67) 『論衡』, 初稟篇, “文王得赤雀, 武王得白魚赤烏, 儒者論之, 以爲雀則文王受命, 魚鳥則武王, 受命, 文武受命於天, 天用雀與魚鳥命授之也.”

68) 『宋書』 권29, 志第19 符瑞下, “赤烏, 周武王時銜穀至, 兵不血刃而殷服.”

한편 김주원이 기거하던 곳은 알천 건너라고 하였다. 알천은 현재도 경주에서는 北川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왕경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오행설로 보면 북쪽의 黑을 남쪽의 赤이 제압하는 구조⁶⁹⁾로 되어 있어 적오의 출현은 김주원을 제압한다는 의미를 또한 가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오행설은 김헌창의 반란이 패망할 징조로 『삼국사기』에 기록된 靑州太守廳事 南쪽 연못에 身長이 5척이고, 색이 검은 異鳥가 3일 만에 죽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⁷⁰⁾ 靑州(현재 진주)는 김헌창이 헌덕왕 8년(816) 정월부터 13년(821) 4월까지 都督을 지낸 적이 있는 곳이다. 비록 청주는 신라 왕경의 남쪽에 위치한다고 하여도, 김헌창의 반란의 중심지이자 김헌창이 자결한 곳인 웅주(웅천주)는 왕경의 북쪽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출현하여 3일 만에 죽은 검은 색의 異鳥는 북쪽에서 패망할 김헌창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주목될 점은 신라 하대에 처음 출현한 상서물인 적오를 패강진에서 진상하였다는 것이다. 『삼국사기』 기록에서 패강진은 선덕왕대에 집중적으로 관리된 곳이었다.⁷¹⁾ 패강진은 선덕왕 재위 당시 상대등이며, 해공왕 당시부터 兵權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는 원성왕(김경신)의 영향이 컸던 곳으로 보인다. 이곳에 김경신이 원성왕으로 즉위하기 2년 전인, 선덕왕 4년(783) 정월에 6두품으로 추정되는 金體信이 군주로 임명되었다.⁷²⁾ 하대를 개창한 원성왕의 왕권강화의 한 방편으로 원성왕의

69) 고구려에서도 “黑蛙與赤蛙群鬪黑蛙不勝死，議者曰，黑北方之色，北扶餘破滅之徵也。”(『삼국사기』 권13, 유리명왕 29년 6월조)라고 오행설을 수용하고 있다.

70)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14년조.

71) 『삼국사기』 권9, 선덕왕 2년(781), “秋七月，秋七月，發使安撫溟江南州郡。”；
3년(782), “二月，王巡幸漢山州，移民戶於溟江鎮。”；
4년(783), “春正月，以阿浪休信爲大谷鎮軍主。”

권40, 잡지9, 외관 패강진전, “溟江鎮典頭上大監一人 宣德王三年始置大谷城頭上。位白級浪至四重阿浪爲之。”

72) 김체신을 6두품으로 추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續日本紀』 권24, 廢帝 淳仁天皇 天平寶字 7년(경덕왕 22, 763) 2월, “癸未，新羅國遣級浪金體信已下二百一十一人朝貢。”

② 『성덕대왕신종명』 (771), “副使執事部侍郎阿浪金體信.”

지지세력들이 패강진에서 적오를 진상한 것이다.⁷³⁾ 패강진의 원성왕 지지세력들도 상서물인 적오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원성왕 4년(788) 讀書三品科를 처음 시행할 때 五經·三史·諸子百家書의 글을 널리 통달한 자는 등급을 뛰어넘어 발탁 등용하였다⁷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독서삼품과 시행 이전에도 적오를 수록한 경전과 사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⁷⁵⁾ 원성왕이 즉위하자 이어지는 여러 시책 기사 중에 패강진에서의 적오 진상기사도 혜공왕대 이후 느슨해진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 보여진다.⁷⁶⁾

또 선덕왕의 유조를 살펴보면 선덕왕은 항상 禪讓하여 궁밖에서 거주하려고 했으며, 백성들이 곤궁한 것 또한 정치가 하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기록이 있다.⁷⁷⁾ 이렇게 선덕왕이 얻지 못한 하늘의 뜻[大

③ 『삼국사기』 권9, 선덕왕 4년(783) 1월, “以阿湓體信爲大谷鎮軍主.”

위의 사료와 같이 김체신은 763년 급찬(9위)이었다가 771년에는 아찬(6위)이 되었다. 하지만 이후 12년이나 지난 783년에도 여전히 아찬(6위)인 것이다. 이는 그가 6두품의 한계로 아찬까지 밖에 승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또 이기백과 이영호도 김체신이 6두품의 활동 무대인 집사시랑을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를 6두품으로 보았다(이기백, 「新羅 下代の 執事省」,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188쪽; 이영호, 「新羅 執事部の 設置와 中侍」,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2014, 265~268쪽).

73) 안주홍은 779년 김유신 혼백이 미추왕릉에 찾아가 자손들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소연할 때 김유신 가문의 신원운동을 김경신이 주도하였다는 점과 김암이 패강진 두상을 하였다는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의 기록을 들어 이때 패강진 두상은 김유신의 후손인 김암으로 파악하였다(안주홍, 앞의 논문, 1999, 152쪽). 하지만 시기상으로 볼 때 김암은 원성왕 즉위 이후(785년 1월)에 패강진 두상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74) 『삼국사기』 권10, 원성왕 4년조.

75) 독서삼품과는 원성왕의 왕위계승을 해몽한 여삼이나 패강진에서 적오를 헌상한 김체신과 같은 6두품 이하 세력의 큰 정치적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독서삼품과는 원성왕이 즉위 전 자신의 정치세력 확보를 위해 여삼이나 김체신 같은 6두품 이하 계층의 실무진에게 새로운 인재 선발방식을 시행하여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시행했다고 추정된다. 독서삼품과의 시행은 그 성과를 떠나 골품제 사회에서의 획기적인 정치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다.

76) 이는 패강진의 원성왕 지지 세력들이 선덕왕의 禪位 혹은 病死를 미리 예상하고 적오를 미리 잡아두었다가 때를 맞추어 진상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心]을 원성왕은 적오를 통해 얻었다며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B. (원성)왕의 아버지 大角干 孝讓이 祖宗의 만파식적을 왕에게 전했다. 왕이 이를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두터이 天恩을 받아 그 덕이 멀리 빛났다. (『삼국유사』 권2, 기이2, 원성대왕)

원성왕의 왕위계승이 天意라고 하는 또 다른 기사로 원성왕과 관련된 만파식적 설화가 있다.⁷⁸⁾ 만파식적 설화가 원성왕의 왕위계승과 관련하여 다시 부각된 것은 실질적으로 하대를 개창한 원성왕대의 정치운영이 중대와의 단절이 아닌 계승을 표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⁷⁹⁾

위의 사료에 의하면 원성왕에게 父인 효양이 만파식적을 전해주었다고 한다. 앞의 사료 A)와 같이 원성왕은 즉위 후 바로 아버지인 효양을 명덕대왕으로 추봉하고, 오묘에 부묘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설화는 실제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정통성이 부족한 원성왕의 왕위계승을 합리화하기 위해 원성왕 즉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유포시켰다고 보아야겠다.⁸⁰⁾ 즉 父로부터 전해 받은 만파식적을 가지고 있는 원성왕은 전임 혜공왕이나 선덕왕의 시대와는 달리, 천재지변을 막을 수 있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할 것이라고 홍보하였던 것이다. 원성왕의 왕위계승은 人謀에 의한 것이 아니라 天意이고 天恩에 의한 것이었

77) 『삼국사기』 권9, 선덕왕 6년(785), “春一月, 詔曰, … 年不順成, 民用窮困, 此皆德不符民望, 政未合大心. 常欲禪讓, 退居干外.”

78) 김상현은 『삼국유사』의 만파식적과 관련된 설화를 전하는 萬波息笛條, 栢栗寺條, 元聖大王條의 기록들은 모두 당시의 지배계층에 의해 형성되거나 전승·유포된 설화로, 이들 ‘지배계층의 강한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것이라 하였다(金相鉉, 『萬波息笛說話의 形成과 意義』, 『韓國史研究』 34, 한국사연구회, 1981, 11~12쪽).

79) 권영오, 「新羅 元聖王之 즉위과정」, 『新羅下代 政治史 研究』, 혜안, 2011, 137~138쪽; 윤선태, 『三國遺事』 紀異篇 ‘元聖大王’條의 가치 - 신라 ‘下古’시기의 정치구조와 그 함의』,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38,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신라문화연구소, 2017, 44~45쪽.

80) 金敬愛, 「新羅 元聖王之 卽位와 下代 王室의 成立」, 『韓國古代史研究』 41, 한국고대사학회, 2006, 290쪽.

음을 만파식적의 신성함을 빌려 강조하였다. 이로써 그의 즉위를 정당화 하였던 것이다.

위의 사료 B)에 “왕이 만파식적을 얻으니 두터이 천은을 받아 그 덕 이 멀리 빛났다”라고 기록된 것은 이런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위의 사료를 보면 만파식적이 ‘祖宗’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종’은 ‘代代로의 임금’이란 뜻이므로, 만파식적이 ‘대대로의 임금의 것’이었다는 말이 된다.⁸¹⁾ 天意에 의해 정당한 왕위계승자인 원성왕에게로 만파식적이 전해졌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만파식의 설화는 적오의 진상과 마찬가지로 천의로서 원성왕의 왕위계승을 정당화하려고 한 것이며, 나아가 중대왕실과 화합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C. (원성왕) 6년(790) 봄 정월에 宗基를 시중으로 삼았다. 碧骨堤를 증축하였는데, 전주 등 7주 사람을 징발하여 공사를 하였다. 熊川州에서 赤鳥를 진상하였다. 3월에 일길찬 伯魚를 북국에 사신으로 보냈다. (『삼국사기』 권10, 원성왕 6년)

두 번째 적오의 출현으로 원성왕 6년 熊川州에서 적오를 진상한 위의 기사가 있다. 이때 원성왕이 김주원의 아들인 宗基를 시중으로 삼은 것을 김주원의 무열왕계를 밀어내고 왕권을 장악한 정당성 확보와 관련지은 견해도 있다.⁸²⁾ 또 碧骨堤를 증축하기 위해 신라 9개의 州 중 전주 등 7개 주에서 사람들을 징발하여 벽골제를 증축하였던 것은 소규모의 공사가 아닌, 거국적인 차원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⁸³⁾ 이러한 국가의 힘에 의한 대규모 수리사업의 수행은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를 강화하고 집권체제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했을 것임은 분명하다.⁸⁴⁾ 이 시기에 웅천주

81) ‘祖宗’을 ‘君主의 조상’으로 해석하면 원성왕이 태종무열왕 후손일 가능성이 있으나, 단순히 이전 군주들의 총칭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다(金相鉉, 앞의 논문, 1981, 17쪽).

82) 이회덕, 앞의 책, 1999, 283쪽.

83) 신정훈, 앞의 책, 2013, 151쪽.

84) 이기백, 「新羅私兵考」, 앞의 책, 1974, 286쪽.

에서 적오의 진상은 원성왕의 왕권 강화에 대한 치적을 경축한다는 의미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기사는 北國인 발해에 삼국 통일이후 처음으로 사신을 보낸 것이다. 원성왕이 발해에 사신을 보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생긴 듯하다. 『史記』 『周本紀』에 赤烏와 白魚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전래되고 있으며, 『삼국사기』 문무왕 11년조의 기사⁸⁵⁾에 나타난 白魚와 사신인 일길찬 伯魚와의 유사성을 관련지어 볼 때 발해의 어떤 무력 도발 등을 상정해볼 수 있으나 기록이 없어 단지 추론만 한다.⁸⁶⁾

D. (애장왕) 2년(801) 봄 2월에 시조묘를 배알하였다. 太宗大王과 文武大王의 2묘를 별도로 세우고, 始祖大王과 왕의 고조부 明德大王, 증조부 元聖大王, 할아버지 惠忠大王, 아버지 昭聖大王을 五廟로 하였다. 병부령 인승을 御龍省 私臣으로 삼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등으로 삼았다. 대사면을 하였다. 가을 9월 무진주에서 赤烏를 진상하였다. 牛頭州에서 白雉를 진상하였다. (『삼국사기』 권10, 애장왕 2년)

세 번째로 애장왕 2년에 진상된 적오는 애장왕의 즉위와 관련된 것임에는 분명해 보인다.⁸⁷⁾ 소성왕이 즉위 1년 6개월 만에 즉위하면서 13세의 어린 나이의 청명이 애장왕으로 즉위하게 된다. 소성왕은 청명을 태자로 책봉한 바로 그달에 죽었으므로, 청명은 태자로서 왕위를 계승하게

85)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 “春一月, 聞唐兵欲來救百濟, 遣大阿滄真功·阿滄□□□□兵守甕浦白魚躍入□□□□□□□□一丈.” 이 기사는 周나라 武王이 殷나라 紂王을 정벌하러 가던 길에 황하 중류에서 白魚가 왕의 배에 뛰어 들었다는 고사와 비슷하다.

86) 조금 뒤 시기이지만 아래의 이 기사를 통해 신라와 발해의 무력충돌을 예상해볼 수도 있겠다. 이때부터 충돌의 원인이 발생하였고, 뒤에 충돌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한다. 또 신라가 두 번째로 발해에 사신을 보내는 시기도 헌덕왕 4년(812)이라는 점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遼史』 권38, 志8 地理志2 東京道, “唐元和中(806~820) 渤海大仁秀, 南征新羅, 北略諸部開置郡邑, 遂定今名. …”

『삼국사기』 권10, 원성왕 4년(812), “秋九月, 遣級滄崇正使北國.”

87) 신정훈, 앞의 책, 2013, 141쪽.

된다. 즉 어린 청명을 태자로 책봉한 후 애장왕으로 즉위하게 한 것은 소성왕의 유조인 듯하다. 뒤이어 상대등이 되고, 어룡성 사신이 된 김언승이 애장왕을 섭정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소성왕의 유조였을 가능성이 있다.⁸⁸⁾ 이때 소성왕이 애장왕의 삼촌인 김언승을 섭정으로 선택한 것은周公의 선례가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공은 文王의 아들이고 武王의 아우였다. 문왕·무왕을 도와 開國의 공을 세웠고, 무왕이 죽은 다음에는 어린 조카 成王을 세우고 보좌하여, 주 왕실의 기초를 튼튼히 하였다. 成王이 장성하자 주공은 정권을 성왕에게 돌려주었다.⁸⁹⁾ 삼촌인 김언승이 섭정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러한 주공의 사례를 모범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⁹⁰⁾ 이때 진상되는 적오는 정통성을 가진 어린 애장왕이 天意를 받아 善政을 베풀 것이라는 豫徵으로도 볼 수 있겠다.

또한 『漢書』王莽傳에 의하면, 王莽은 塞外蠻夷로부터 白雉를 진상하게 한 후 元始元年 正月에 태후에게 알려 詔를 내리게 하여 백치를 종묘에 供奉하였다. 이로 보아 백치는 종묘제사에도 올리던 상서로운 새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왕망의 공로가 周公·成王 때와 같이 백치의 상서를 불러왔다고 칭송하였다.⁹¹⁾ 漢代에 있어서 백치의 출현은 중국 역사상 이상정치가 가장 잘 실현되었다는 주공의 공덕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서

88) 이문기, 「신라 하대 사회의 성립과 초기의 변화」, 『신라 하대 정치와 사회연구』, 학연문화사, 2015, 58쪽.

89) 『史記』권4, 周本紀, “(武王) 後而崩, 太子誦代立, 是爲成王. 成王少, 周初定天下, 周公恐諸侯畔周, 公乃攝行政當國. … 周公行政七年, 成王長, 周公反政成王, 北面就群臣之位.”

90) 손홍호, 앞의 논문, 2021, 59~60쪽.

91) 『漢書』권99上, 王莽傳上, “始, 風益州令塞外蠻夷獻白雉, 元始元年正月, 莽白太后下詔, 以白雉薦宗廟, 群臣因奏言太后, 委任大司馬莽定策安宗廟, 故大司馬霍光有安宗廟之功, 益封三萬戶, 疇其爵邑, 比蕭相國, 莽宜如光故事, 太后問公卿曰, 誠以大司馬有大功當著之邪, 將以骨肉故欲異之也. 於是群臣乃盛陳, 莽功德致周成白雉之瑞, 千載同符, 聖王之法, 臣有大功則生有美號, 故周公及身在而託號於周, 莽有定國安漢家之大功, 宜賜號曰安漢公, 益戶, 疇爵邑, 上應古制, 下準行事, 以順天心, 太后詔尚書具其事.”

물이었다.92) 『孝經』에서는 神契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王者가 제사에 대하여 법도를 어기지 않고, 宴食과 의복에 절도가 있으면 백치가 찾아온다’고 하였다.93) 이때 백치의 진상은 사료 D)와 같이 애장왕 2년 오묘제의 개편에 대한 정치적 의미와도 관련 있어 보인다.

또 백치는 주공의 적오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94) 이러한 적오와 백치를 연이어 진상함으로써 애장왕의 친정세력과 김언승(헌덕왕) 등의 섭정세력간의 화합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E. 3년(802) 봄 정월에 왕이 친히 신궁에 제사지냈다. 여름 4월에 아찬 金宙碧의 딸을 후궁으로 들였다. 가을 7월에 지진이 있었다. 8월에 가야산 해인사를 창건하였다. 歙良州에서 赤烏를 진상하였다. (『삼국사기』 권10, 哀莊王 3年)

네 번째의 적오의 진상은 위의 사료와 같이 애장왕 3년(802) 8월에 창건된 해인사와 관련 있어 보인다. 해인사는 삼량주에 속한 지역이다. 이러한 삼량주에서 같은 달인 8월에 적오를 진상한 것은 해인사의 창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해인사의 창건 주체와 경위 등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효공왕 4년(900) 최치원이 쓴 「新羅迦耶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이하 「벽기」로 줄임)95)와 해인사에서 전해 내려오는 작자 미상의 「伽耶山海印寺古籍」96)을 통해서 해인사 창건과 관련된 내용을 약간이나마 살필 수 있다. 해인사는 화엄 승려인 順應과

92) 이희덕, 앞의 책, 1999, 285쪽.

93) 『孝經』, 援神契曰, “王者祭祀不相踰, 宴食衣服有節, 則白雉至.”

94) 『漢書』 권96, 西域傳贊, “雖大禹之序西戎, 周公之讓白雉, 太宗之卻走馬, 義兼之矣, 亦何以尚茲.”라고 있고, 그 師古註에는 “昔周公相成王, 越裳氏中九譯而獻白雉.”라 있다.

95) 『東文選』 권64, 「新羅 迦耶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 “有若祖師順應大德. … 越貞元十八年良月既望, 牽率同志, 卜築於斯山靈鈞妙德之名. … 于時聖穆王太后. … 利貞禪伯, 踵武興功.”

96) 『朝鮮寺刹史料(上)』, 「伽耶山海印寺古籍」, “後果有順應利貞兩大師, 入中國求法. … 仍囑曰, 汝國牛頭山西, 有佛法大興處, 汝等還國, 可勸立別禪補大伽藍海印寺. … 時新羅第三十九王, 哀莊大王王后患發背. … 患差, 王感之敬之, 使國人勸立茲寺焉, 時哀莊三年壬午, 卽唐貞元十八年也, 大王親幸於茲寺, 納田二千五百結慶讚畢後還國.”

利貞이 왕실의 도움을 받아 창건하였음은 위의 두 기록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백기」에는 성목태후(애장왕의 조모)의 귀의와 도움이 절대적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가야산해인사고적」에는 두 승려가 애장왕 왕후의 병을 고쳐준 것이 계기가 되어 해인사를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백기」를 통해 보면 해인사의 창건에 관여했던 왕실의 단월은 성목태후이다. 남편인 인검태자를 먼저 떠나보낸 성목태후가 불교에 귀의하고 재산을 희사하여 순응의 해인사 창건을 크게 도왔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⁹⁷⁾

해인사 창건의 또 다른 목적은 성목태후의 아들이자 당시 섭정이었던 김언승이 애장왕의 친정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백기」에서 애장왕이 이 때 해인사에 田 2,500결을 시납했던 것도 성목태후와 김언승을 중심으로 한 섭정세력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⁹⁸⁾

비슷한 시기 애장왕의 모후인 계화부인이 죽은 남편이자 애장왕의 父인 소성왕을 위해 鑿藏寺의 彌陀殿에 彌陀像과 神衆을 만들어 모셨던 것과 비교되어, 애장왕 초기 친정세력의 처지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 때 계화부인은 ‘근심에 차서 황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슬퍼함이 지극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상해 있었다’고 하였다.⁹⁹⁾

이와 같이 애장왕 3년 당시 삼량주에서 진상된 적오는 김언승 등의 섭정세력이 해인사를 창건하면서, 그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적오의 출현은 섭정 세력인 김언승(현덕왕)과 그의 형제들과 애장왕 친정세력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¹⁰⁰⁾

97) 崔源植, 「新羅 下代の 海印寺와 華嚴宗」, 『韓國史研究』 49, 韓國史研究會, 1985, 6쪽.

98) 정선용, 「신라 애장왕대 해인사 창건과 왕실세력의 동향」, 『韓國古代史探究』 32, 韓國古代史探究學會, 2019, 32쪽.

99) 『삼국유사』 권3, 탑상4, 무장사 미타진.

한국고대사회연구소편, 「鑿藏寺 阿彌陀如來造像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II)』, 1992, 305쪽에서는 이 비문의 찬자(또는 서자)인 金陸珍은 당시 관등이 大奈麻였다. 또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애장왕 10년조에는 그가 大阿浪의 관등을 가지고, 당에 사신으로 보내진 사실이 확인된다. 김육진의 관등 승진과 죽은 소성왕의 명복을 비는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유추하면 이 아미타어래를 조상한 시기는 해인사가 창건된 시기와 가까운 애장왕대 초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F. 2년(810) 봄 정월에 과진찬 亮宗을 시중으로 삼았다. 河西州에서 赤烏를 진상하였다. 2월에 왕이 친히 신궁에 제사를 지냈다. 使者를 보내 국내의 제방을 수리하였다. 7월에 西原京에서 白雉를 진상하였다.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2년)

마지막 다섯 번째의 헌덕왕 2년(810) 1월 하서주에서의 적오의 진상은 조카인 애장왕을 시해하고 왕위에 오른 헌덕왕이 왕위계승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여러 조치 중 하나였다.

애장왕이 친정을 할 수 있는 18세가 되는 해에 당으로부터 책봉 조서를 받았다. 이때부터 애장왕의 친정체제로 정국 변화가 이루어졌다.¹⁰¹⁾ 그런 면에서 상대등이자 섭정인 김언승과 시중인 김수종 및 김충공은 애장왕의 친정체제 수립에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이들 3형제가 장악한 정국의 주도권에 애장왕과 그의 동생인 김체명 등의 친정체제과가 도전함으로써 김언승과 그의 형제들은 드디어 애장왕 시해에 나서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애장왕을 시해하고 정권을 장악한 헌덕왕과 그의 형제들은 이완되어 온 지배체제를 새로이 정비해야지만 신라 사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하서주에서 진상되는 적오는 헌덕왕의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하늘의 힘을 빌어 홍보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헌덕왕은 조카를 시해하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天意에 의한 왕위계승 정당성 확보가 간절했을 것으로 본다. 또 이상적인 정치가 펼쳐진다는 합법성을 나타내기 위한 백치의 출현도 기대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 상황으로 적오와 백치가 출현되어졌다고 본다.

100) 신정훈, 앞의 책, 2013, 152쪽.

101) 최병헌은 애장왕 6년 이후의 개혁 정책들을 애장왕의 친정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崔柄憲, 「新羅下代 社會의 動搖」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76, 444쪽). 최흥조도 진흥왕과 해공왕의 친정 개시 시기가 왕이 18세가 되던 해인 前例와 애장왕 6년(805)의 책봉기사를 실마리로 하여 이때부터 애장왕의 친정이 시작되었다고 한다(최흥조, 「新羅 哀莊王代의 政治變動과 金彦昇」, 『韓國古代史研究』 34, 한국고대사학회, 2004, 341~344쪽).

이와 같이 『삼국사기』에 신라 하대 초기인 원성왕 원년(785)부터 헌덕왕 2년(810)까지 약 26년간 5차례만 기록되어 있는 적오는 天意가 필요로 했던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출현하게 되었으며, 이는 왕권강화의 도구로 상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고대 정치에서 상서물의 의미와 등급을 먼저 논한 후, 신라 하대 상서물의 특징을 중국·일본의 시대와 비교하면서 신라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을 찾아보았다. 또 신라 하대 초기인 원성왕대에서 헌덕왕대까지(785~810) 26년간 5번만 집중 출현되어지는 적오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왕권강화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신라 하대에는 상서물의 종류가 중대보다 대폭 줄어들며(11종류→ 6종류), 鳥類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때 적오와 백오가 신라에서 처음으로 출현되어 진상되고 있다. 또 이러한 상서물은 하대 초반기(785~825)에 하대 전체 14건 중 13건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삼국사기』에는 상서물의 등급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중·하대에 등급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듯하다. 상서물을 진상한 지역도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하대 초기까지 중앙정부는 어느 정도 지방통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어 신라 하대에만 5번 출현되는 적오의 의미를 세밀히 파악해보았다. 적오는 국가의 흥기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상서물로 인식되었으며, 赤과 白의 오행설에 의해 赤의 周나라가 白의 殷나라를 멸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漢나라를 세운 高祖 劉邦은 패왕 항우의 전투에서 처음에는 열세에 놓여 있었으나, 뒤에 세력이 살아나 천하를 잡았다. 일본의 천무천황도 한 고조의 천하 패권 과정이 임신의 난에 비유되면서, 한고조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사용하게 되었고, 火德의 적오를 符瑞로 삼게 되

었다. 비슷한 상황으로 신라 하대를 실질적으로 개창한 원성왕은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天命을 받았으며, 그것을 증명해야 했다. 바로 이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의미 있는 상서가 출현하게 되었다. 신라에서 처음 출현한 상서물인 적오의 출현은 새 왕조의 확립과 그 왕조의 정당성이 천명에 의해 보장되는 상징이라고 하겠다. 또 이를 폐강진에서 진상하였다는 것은 두상인 6두품 김체신과 원성왕의 지지 세력들이 원성왕의 왕위계승을 인정하겠다는 표시였던 것이다. 원성왕에게로 전해지는 만파식적의 설화도 적오의 진상과 마찬가지로 天意로서 원성왕의 왕위계승을 정당화하려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성왕 6년 적오의 출현은 왕권의 강화로 인해 거국적인 차원의 공사인 벽골제를 증축하였다는 지적을 경축한다는 의미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애장왕 2년에 진상된 적오는 애장왕의 즉위와 관련된 것이다. 주나라 주공은 어린 조카 成王을 세우고 보좌하여, 주 왕실의 기초를 튼튼히 하였다. 성왕이 장성하자 주공은 정권을 성왕에게 돌려주었다. 삼촌인 김언승이 섭정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러한 주공의 사례를 모범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때 적오는 정통성을 가진 어린 애장왕이 天意를 받아 善政을 베풀 것이라는 豫徵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적오와 백치를 연이어 진상함으로써 애장왕의 친정세력과 김언승(헌덕왕) 등의 섭정세력간의 화합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애장왕 3년(802) 8월에 진상된 적오는 해인사의 창건과 관련있어 보인다. 김언승 등의 섭정세력이 해인사를 창건하면서, 그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섭정 세력인 김언승(헌덕왕)과 그의 형제들과 애장왕의 친정세력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마지막 헌덕왕 2년(810) 적오의 진상은 조카인 애장왕을 시해하고 왕위에 오른 헌덕왕이 왕위계승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한 여러 조치 중 하나였다.

이와 같이 『삼국사기』에 신라 하대 초기인 원성왕 원년(785)부터 헌덕왕 2년(810)까지 약 25년간 5차례만 기록되어 있는 적오는 天意가 필요로 했던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출현하게 되었다. 적오의 출현을 통

해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이를 왕권강화의 도구로 상징화하였던 것이다.

※ 이 논문은 2023년 05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05월 25일부터 06월 0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06월 0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三國史記』, 『三國遺事』, 『朝鮮王朝實錄』, 『東文選』, 『朝鮮寺刹史料(上)』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唐會要』, 『唐六典』, 『唐令拾遺』
『漢書』, 『三國志』, 『遼史』, 『宋書』, 『史記』,
『禮記』, 『論衡』, 『春秋繁露』, 『春秋左傳正義』, 『呂氏春秋』, 『文選』
『尚書大傳』, 『白虎通義』, 『孝經』, 『水經注』
『延喜式』, 『日本書紀』, 『續日本紀』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 권영오, 『新羅下代 政治史 研究』, 혜안, 2011.
신정훈, 『한국 고대의 서상과 정치』, 혜안, 2013.
李基東,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1997.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이문기, 『신라 하대 정치와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2015.
이영호,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2014.
李熙德, 『韓國古代 自然觀과 王道政治』, 혜안, 1999.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3 (주석편 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12.
- 강봉룡, 「한국 고대사에서 龍에 대한 인식의 변천-왕 神聖 권위의 변화와 관련하여-」, 『歷史學研究』 86, 湖南史學會, 2022, 5~42쪽.
權英五, 「新羅 元聖王의 즉위 과정」, 『釜山史學』 19, 釜山大學校史學會, 1995, 143~169쪽.
권오영, 「한국 고대의 새(鳥) 관념과 祭儀」, 『역사와 현실』 32, 한국역사연구회, 1999, 93~122쪽.
金敬愛, 「新羅 元聖王의 卽位와 下代 王室의 成立」, 『韓國古代史研究』 41, 한국고대사학회, 2006, 261~298쪽.
김동민, 「董仲舒 春秋學의 天人感應論에 대한 고찰 - 祥瑞災異說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36, 동양철학연구회, 2004, 313~348쪽.
金相鉉, 「萬波息笛說話의 形成과 意義」, 『韓國史研究』 34, 한국사연구회, 1981,

1~27쪽.

- 金周成, 「신라하대 왕실의 지방통치」, 『新羅文化』 26,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신라문화연구소, 2005, 101~112쪽.
- 손흥호, 「9세기 전반 신라의 사회변동과 지방사회」, 『大丘史學』 135, 大丘史學會, 2019, 1~33쪽.
- 손흥호, 「신라 하대 초기 정치과정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신정훈, 「新羅 麻立干期和 中古期の 瑞祥과 政治」, 『국학연구론총』 15, 태민국학연구원, 2015, 196~227쪽.
- 楊 洋, 「漢代 堯後火德說의 성립」, 『歷史學研究』 68, 湖南史學會, 2017, 225~256쪽.
- 안주홍, 「신라 종묘제 수용과 변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 안주홍, 「신라 하대 원성왕대의 宗廟와 瑞祥」, 『韓國古代史研究』 109, 한국고대사학회, 2023, 313~350쪽.
- 여성구, 「신라 美汾考」, 『영남학』 8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101~139쪽.
- 윤선태, 「『三國遺事』 紀異篇 ‘元聖大王’條의 가치 - 신라 ‘下古’시기의 정치구조와 그 함의」,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38,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신라문화연구소, 2017, 31~67쪽.
- 이기봉, 「新羅 憲德·興德王代의 災異와 정치·사회적 영향」, 『역사와 경계』 100, 부산경남사학회, 2016, 241~269쪽.
- 이장웅, 「한국 고대 새(鳥類) 관념의 변화 - 신성한 새에서 현실의 새로」, 『韓國古代史探究』 31, 韓國古代史探究學會, 2019, 327~379쪽.
- 전덕재, 「신라 왕권의 쇠퇴와 지배체제의 동요」,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6, 10~18쪽.
- 정선용, 「신라 애장왕대 해인사 창건과 왕실세력의 동향」, 『韓國古代史探究』 32, 韓國古代史探究學會, 2019, 293~328쪽.
- 정연식, 「7세기 침성대 건립과 천문이변 기록 증가의 관련설에 대한 비판 - 『삼국사기』 신라본기 상서재이 기록의 통계 분석 -」, 『歷史學報』 206, 역사학회, 2010, 311~335쪽.
- 趙宇然, 「“神雀集宮庭”-고구려 王權 관련 神異記事 검토」, 『東아시아 古代學』 48, 東아시아 古代學會, 2017, 47~117쪽.

- 최광식, 「新羅 下代와 崔致遠」,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38, 동국대학교 WISE캠 퍼스 신라문화연구소, 2017, 1~30쪽.
- 崔柄憲, 「新羅 下代 社會의 動搖」, 『韓國史』 3, 국사편찬위원회, 1976, 427~502쪽.
- 崔源植, 「新羅 下代の 海印寺와 華嚴宗」, 『韓國史研究』 49, 韓國史研究會, 1985, 1~25쪽.
- 최홍조, 「新羅 哀莊王代의 政治變動과 金彥昇」, 『韓國古代史研究』 34, 한국고대사학회, 2004, 329~372쪽.
- 朴星來, 「韓國史上에 나타난 天災地變의 記錄」, 『한국과학사학회지』 1, 한국과학사학회, 1979, 96~97쪽.
- 李浩, 「中國古代祥瑞崇拜的文化詮釋」, 『民俗研究』 2008-2, 山东大学文史哲研究院, 2008, 167~177쪽.
- 東野治之, 「飛鳥奈良朝の祥瑞災異思想」, 『史料遍歴』, 雄山閣, 1975.
- 井上通泰, 「天武天皇紀闡幽」, 『萬葉集雜攷』, 明治書院, 1932.
- 直木孝次郎, 「持統天皇と呂太后」, 『持統天皇』, 吉川弘文館, 1985.
- 坂本太郎, 『日本史』 2, 好学社, 1960.
- 福岡水亜, 「九世紀における祥瑞の変化とその歴史的背景」, 『續日本紀研究』 421, 續日本紀研究会, 2020, 18~41쪽.
- 福原栄太郎, 「祥瑞考」, 『ヒストリア』 65, 大阪歴史学会, 1974, 1~30쪽.
- 柄 浩司, 「六国史の祥瑞記事について」, 『中央史学』 10, 中央大学, 1987, 1~20쪽.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Appearance of the Red-crow in the Late Silla Dynasty

Son, Heung-ho

In ancient times, Auspicious things was considered not just a natural phenomenon, But a phenomenon that appeared as a result of the virtue of the king. In the late Silla Dynasty, the types of the auspicious things were significantly reduced (11types→6types), and the proportion of birds were high. At this time, the Red-crow and the White-crow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Silla Dynasty and are being offered. In addition, the main characteristic is that 13 out of 14 cases of the auspicious things are concentrated in the early period(785~825). The fact that the areas where the auspicious things were offered were evenly distributed nationwide may be because the central government had complete control of the provinces until the early period of late Silla Dynasty.

The Red-crow was recognized as a symbol of the rise and legitimacy of the state. Emperor Cheonmu of Japan and the Emperor Han Youbang of China also used the Red-crow of virtue as the emperor. King Wonseong, who practically opened the late Silla Dynasty, received the Command from heaven(天命) as a process of stabilizing the royal authority and had to prove it. At this time, meaningful the auspicious suitable for the new era emerged. The emergence of the Red-crow, the first the auspicious thing that appeared in Silla Dynasty, is a symbol that guarantees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dynasty and

the legitimacy of the dynasty by the Command from heaven. In addition, the fact that this was presented at the Paegangjin(溟江鎮) was a sign that the including the head, Kim Che-shin, would recognize King Wonseong's succession to the throne.

From King Wonseong Dynasty to King Heondeok Dynasty(785~810), which was in the early period of late Silla Dynasty, it emerged in the situation of the times when the Red-crow was needed to appear only five times over 26 years. The legitimacy of the succession of the throne was secured through the appearance of the Red-crow, and it was symbolized as a tool for strengthening royal authority.

keywords :

Auspicious sign, Auspicious things, Red-crow, the late Silla Dynasty, King Wonseong

